

# 20세기 한국의 열린 촌락, 닫힌 공동체의 이미지

—농민의 행위패턴을 둘러싼 진화적 게임이론의 모색—

정 승 진<sup>2)</sup>

농촌해체가 완료된 열린 촌락 하에서 개인주의적 농민상의 부상에도 불구하고 협력적 농민상, 농민문화의 연구사적 의의는 감소하지 않을 것이다. 이 글은 동아시아라는 세계사적 맥락에서 이행기의 한국 촌락을 이론적으로 또 비교사적으로 검토함으로써 농촌 내 농민들의 인간관계의 양상, 개인의 행위패턴 등 농민문화의 일단에 접근하고자 하는 것이다. 여기서는 기존의 공동체적 농민문화를 전제한 위에 닫힌 또는 열린 촌락 하에서의 개인주의적 농민상이라는 두 가지 경로를 동시에 고려하고 있다. 근대 한국의 촌락은 형식상 열린 촌락의 특징을 보이고 있으면서도 내용상으로는 비공식적 결사체의 행태로 공동체의 이미지를 증폭시켜 왔다. 그 원인은 식민지적 규율권력의 관통, 급격한 상업화·도시화에 의해서도 해체될 수 없는, 비공식적 레벨에서 전개되고 있는 농민문화의 정신세계 때문일 것이다. 이 글에서 제시된 농민상은 마을의 질서·규범을 의식하면서도, 협력적 행위와 개인주의적 행위를 조화롭게 조합하고 선택하는 합리적 농민이다. 농민들은 마을 내에서 공유하는 일종의 ‘인지적 지향’(cognitive orientation) 즉, 농민윤리를 의식하면서 개인주의적 행위의 선택 폭을 조절하고 있었다.

핵심주제어: 농민문화, 협력적 행위, 무임승차문제, 인지적 지향, 합리적 농민  
경제학문헌목록 주제분류: N5

## I. 복합사회에서의 농민: 문제제기

근대전환기의 농민사회는 불완전하다. 농민사회는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보다 큰 지역사회의 ‘부분사회’(part society)로서 존재하고 있다(Redfield, 1955·1956). 근대전환기의 농촌사회는 구래의 원시공동체나 봉건제하의 장원만큼 고립된 자기완결적 사회구조를 형성하지 못했다. 이같은 특징 때문에 촌락 농민과 ‘도시엘리트’ 간에는 빈번한 소통관계, 안정적인 공존구조가 형성되었다. 가치, 규범, 지식, 종교, 상품 등 외부적 요소가 촌락 내로 끊임 없이 공급되었다. 근대 농촌사회는 복합사회(complex society) 하에서 도시지역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기능하고 존재했던 것이다(Wolf, 1966). 그러나 이 단계에서 양자가 동일한 생태형(ecotype)과 문화체계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부분사회로서 농민사회는 독자적인 경제·문화체계를 갖고 있다. 레드필드(Redfield, 1955)가 말한 소전통(little tradition)이 그것이다. 이것은 도시부의 문명사회에서 형성된 대전통(great tradition)과 대극적인 개념이다. 소전통은 도시지역의 대전통(=문명)의 모습 그대로

1) 이 논문은 2007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지원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KRF-2007-361-AL0003).

2) 전북대학교 인문한국 쌀·삶·문명연구단 HK교수, E-mail: tateusch@hanmail.net

가 아니라 농민에 의해 독자적 형태의 문화로서 재해석된 것이다. 물론 소전통이 대전통에 영향을 주는 역의 경로도 존재한다. 고도로 문명화된 현대사회에서는 양자가 빈번히 소통함으로써 두 개의 전통이 하나의 대전통으로 수렴되어 있다. 현대 농촌사회에서 대전통만이 존재하는 표준화된 마을을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현대의 상업적 농업을 영위하는 재량적인 경작자(managerial farmer)와 근대전환기의 생존농업(subsistence agriculture)을 구사하는 자급자족적 농민(peasant) 간의 개념 차이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Chayanov, 1966; Clark & Haswell, 1970). 이 후자의 농민이 ‘부분사회’에서 소전통의 담당자였던 소농(小農)이다.

비교사적 관점에서 볼 때 근대에 들어서 한국 농촌은 외부세계에 대해 “열린 촌락”(open village)의 양태를 취하고 있었다. 후술하듯이 열린 촌락이란 가족·통혼권, 토지소유·경작패턴, 이농(離農) 등을 지표로 하여 촌락 농민이 자신의 행위 패턴에 있어서 얼마나 대외 개방적인 태도를 취하는가의 여부를 묻는 행태론적 개념이다(Wolf, 1957; Skinner, 1971). 개항기 이래 대외적 위기와 식민지의 경험은 20세기 한국의 촌락을 “닫힌 공동체”(closed corporate communities)라는 애매한 이미지 속에 가두어놓고 있었다. 이에 따라 농민의 행위 또한 저발전사회의 농민에게 일반적으로 발견되는 집합적 행위자로서의 폐쇄적 농민, 타자에 의해 대표되지 않으면 안 되는 피동적 객체로서 묘사되곤 하였다. 이 연구는 이같은 선형적 가정에 의해 한국의 농민사회를 “닫힌 공동체”라는 애매한 이미지에 가두어 둘 것이 아니라,<sup>3)</sup> 촌락공동체에 관한 이론적 검토, 비교사적 분석을 통해 공공(公共)의 영역으로서의 “열린 촌락”, “합리적 행위자”로서의 한국 농민상을 시론(試論)적으로 제시해 보려는 것이다.

농민이란 개념은 특정한 역사적 단계, 사회적 분업관계 속에서 성립하였다. 농민 관념은 농업 이외의 여타 산업 발달에 따라 농민 아닌 여타 계층이 출현했을 때 타자를 통해 농민 자신을 인식하는 용어법이다(Wolf, 1966). 한국사에서 농민이란 용어법은 식민지 초기의 인구과잉 방식 속에서 확립되었다(Sorensen, 1999: 297-299). 식민지기의 한국 농민은 과거의 막연한 생활 방식에 의한다거나 혹은 근대화되지 않은 저발전사회의 대중이라는, 여전히 모호한 이미지 속에 놓여있었다. 이 때문에 농촌사회는 근대화 및 산업화를 담당할 도시부문에 대해 그 대극적인 지점에서 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전통지역으로 남게 되었다(정승진, 2008). 이 때문에 20세기 근대촌락연구가 겪는 가장 큰 애로점은 식민지화 이래 급격한 도시화·공업화 및 사회조직화에 따라 촌락의 수탈·통제성이나 그 성장·발전상만이 부각된 채 농촌·농민사회의 특질이 연구사의 관심에서 사라져버렸다는 것이다. 특히 농촌의 급격한 해체와 근대화의 발전상만이 상대적으로 부각되면서 촌락문제는 일종의 ‘무대배경’으로 취급되어 버리고 근대적 성장만이 농업문제의 주요 관심사로 남게 되었다(Schultz, 1964; Hayami & Rutan, 1970).

이 글은 동아시아라는 세계사적 맥락 속에서 20세기의 한국 촌락상을 이론적으로 또 비교사적으로 검토하고, 농촌 내 농민들의 행위패턴(pattern of behavior)을 단서로 하여 농민문화의 일단에 접근하고자 하는 것이다. 과연 농민의 행동원리는 “집단적 생존윤리”에 입각하는가, “개인적 합리주의”에 기초하는가, 아니면 이것은 선택의 문제인가, 주어진 조건의 필연적 결과인가. 이같은 거대한 문제에 대해 필자의 능력은 한정되어 있다.<sup>4)</sup> 다만, 여기서는 촌락공동체 문제에 대해서 동아시아 농민의 행위 패턴을 둘러싸고 벌어진 스콧-팝킨(Scott-Popkin) 논쟁과 관련

3) 이 글에서 사용하는 이미지(image)는 조지 포스터(Foster, 1965)의 용례에 따른 것이다. 여기서는 농민들이 촌락 내의 공동체 문화처럼 실제 존재한다고 믿고 있는 인지적 지향(cognitive orientation)을 의미하고 있다.

4) 필자는 이에 대한 하나의 대안으로서 진화적 게임이론을 통해 농민의 행위패턴과 선택문제를 다루어보고자 한다. 진화적 게임이론에 대해서는 최근의 논저 최정규, 2004; Choi & Bowles, 2007; Choi, 2007 참조.

해 한국사회 내에서도 그 이론적 검토의 여지가 여전히 풍부하게 남아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을 뿐이다(Scott, 1976; Popkin, 1979).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이 논쟁의 외연을 한국사회에 거칠게 적용한다면, 한국의 촌락행태는 중·북부 베트남(Annam, Tonkin)보다 개방적이며 남부 베트남(Cochinchina)과 유사한 상업적 농업지대에 속한다. 일본보다는 개방적이며 중국(특히 양쯔강 남부지역)보다는 상대적으로 폐쇄적이다. 20세기 전반 동아시아 각국의 경제발전 수준에 따라 촌락 개방화의 범위도 일정한 격차가 발생하고 있었지만(Hayami & Rutan, 1970), 이 같은 변화상을 고려할 때 한국 농민의 행위패턴도 집단적 생존윤리와 개인적 합리주의 사이의 어느 과도기에 존재하고 있을지 모른다.

## II. 농민사회의 경제·문화적 특징

농민문화의 연구사적 의의는 농촌사회의 다양한 문화적 특징을 고찰한다는 점 외에도 농민문화가 농민의 행위와 촌락의 양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도 달려있다. 농민의 행위 원천을 둘러싸고 벌어졌던 스콧-팝킨(Scott-Popkin) 논쟁은 분석의 차원과 시기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풍부한 논의의 여지를 열어놓았다. 스콧의 모랄-이코노미론(moral economy)은 농촌사회에 공유된 가치·규범이 농민의 행위에 주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인데, 그 실체는 최소한의 생존윤리(subsistence ethic)였다(Scott, 1976: 26-34). 한편 팝킨의 폴리틱얼-이코노미론(political economy)은 촌락내의 무임승차(free-rider) 문제를 지적하면서 ‘규범-행위’간의 인과관계를 부정하고 농민의 행위는 개인주의적 이기심에 따라 행동하며, 촌락은 이러한 개인주의적 행위의 종합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Popkin, 1979: 17-27). 그런데 양자가 공통적으로 논했던 베트남사회는 시기적으로, 지역적으로, 결정적으로는 분석의 추상 수준이 상이했다는 평가를 받게 된다(Little, 1989: 66-67). 이 때문에 궁극적으로 스콧은 19세기 후반 중·북부 베트남(Annam, Tonkin)의 촌락과 그 윤리규범을, 팝킨은 20세기 전반 남베트남(Cochinchina)의 농민을 합리적 의사결정자로 묘사하고 있었던 것이다.

스콧-팝킨 논쟁은 지역연구에 확대·적용되어 인문·사회과학이 사회적 규범과 가치문제를 어떤 식으로 다루어야 하는지를 이론적 차원에서 제기하고 있는 셈이다(原洋之介, 1987: 16, 21-25). 농민의 행위는 기존에 알려진 것처럼 주어진 조건·환경의 산물일 뿐만 아니라, 공유된 가치, 규범 등을 실천하는 의도적인 인간(intentional persons)으로 이해되고 있다. 20세기 전반기에 이르면 농민은 개인적 이해와 촌락의 규범 속에서 선택의 딜레마에 빠지는 ‘합리적’ 의사결정자로 진화하고 있었다(Little, 1989: 13-17). 이같은 커다란 전진은 동아시아 농민들이 전면적인 공업화시기 직전까지 달성한 커다란 사회적 성취이다. 여기서의 합리적 선택이론은 의무, 책임, 도덕적 가치, 자기인식에 대한 숙고의 산물이다. 근대전환기라는 과도기를 살아가는 농민들은 개인주의적 이해, 외부 규범, 혈연관계, 후원자-의존자관계, 계급적 이해 사이에서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었다.

농민사회의 문화적 특징은 무엇인가? 농촌사회에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소전통’은 무엇인가? 우리는 일단 이것을 농민문화의 공유된 가치로 부르고 싶다. 촌락 내의 공유된 가치는 농민의 생태형과 일상으로부터 경험적으로 축적된 것이다.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도작지대는 폭발하는 인구증가와 노동집약적 생존농업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빈곤 속에서 인구증가가 지속된다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으며, 식민지하에서 이중경제(dual economy) 구조가 이를 증폭시키고 있었다. 동아시아지역의 인구 증압은 생존 작물과 상업적 작물의 교차 재배와 “빈곤의 공

유”(shared poverty)라는 촌락 규범에 의해 지탱되었다(Geertz, 1963: 97 ; Wolf, 1957: 2). 쌀과 사탕수수, 쌀과 면화, 쌀과 차 또는 고무 등의 결합이라는 집약적 생태형에 의존하였다. 한국사에서 이같은 사실이 복잡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생존작물로서의 쌀과 상품작물로서의 쌀이 오버랩(overlap)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집약적 농업을 통해 팽창하는 인구압력을 흡수·방어할 수 있다는 것이 기어츠의 저명한 인볼루션(Involution 內旋化 또는 복잡화, 퇴행화) 이론이다(Geertz, 1963: 70, 75-78).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노동력의 집약적 투입에 의해서도 해소될 수 없는 빈곤문제에 대해 촌락 수준의 생존윤리와 사회규범을 관철시키는 것이다(정승진, 2008: 236-239). 생산과 소비 측면은 집약적 ‘인볼루션’에 의존하지만, 분배 측면에서는 “빈곤의 공유”라는 일종의 도덕적 관념이 작동하고 있다. 기어츠의 “빈곤의 공유”개념은 이후 추상적 차원에서 톰슨(Thompson, 1971: 78-79)에 의해 모랄 이코노미론으로 정립되어 전술한 스코트의 생존윤리론 또는 생존우선주의로 완성되었다. 그러나 이같은 촌락 규범과 생존윤리가 농민의 행위를 일면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가, 그 범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를 요한다.

촌락 내에서 행해지는 집합적 행위에 대해 농민들은 언제나 무임승차(free-riding)의 유희를 받고 있다. 촌락 내에서 인구증압은 소득과 부가 같지 않은 계층분화, 교섭력이 상이한 위계제를 탄생시켰다. 따라서 계층간 농민의 유인(incentive) 체계는 같지 않으며, 팝킨이 묘사한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다(Popkin, 1979: 25). 이것은 촌락 규범의 파괴를 초래하며, 그 자체 공유되지 않은 개인주의적 가치의 발현과정이다. 이에 대한 하나의 유인체계가 후원자-의존자관계(patron-client relation)이다. 이 개념은 종래 농민간의 호혜적, 온정주의적 관계를 함축하는 표현이었다. 촌락의 공적 서비스에 대해 마을공동체가 더 많은 재원을 제공하는 부자들에게 후원자-의존자관계의 형성·유지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주는 것이다(Scott, 1972: 5-8 ; Fafchamps, 1992: 161). 생존위기의 시기에 전자가 후자를 보호·후원한다는 사실 때문에, 후자에 대한 착취가 만성화하고 있음도 촌락의 빈곤상 가운데 하나로 관찰되고 있다. 후원자-의존자관계는 부의 축적에 대한 하나의 인센티브시스템이며, 후원자의 온정주의적 태도는 권력과 특권의 원천으로 기능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한편으로 후원자-의존자관계는 촌락 내 계층분화, 착취의 제도화에 따른 촌락 해체의 한 단면으로 이해될 수 있다(Popkin, 1979: 72-78). 이 경우 농민의 개인주의적 행위에 대한 촌락의 윤리·규범은 사실상 무용하기까지 하다.

농민문화는 촌락 내의 종교, 민속의례 등에 의해 일상화되고 제도화된다. 농민은 촌락이라는 대면공동체(face-to-face community) 속에서 일상을 반복하고 있다. 농민들은 모두 축제나 의례에 참여하면서 공동체적 의미와 상징체계를 축적하고 있다. 이것은 새로운 변화에 적응해가는 문화적 가치에 근본적인 의미와 특징을 부여하기도 한다. 마을 공동의 축제와 사회적 규범은 그들의 생태형을 상징적으로 함축하고 있으며, 그들의 행위에 녹아 경험적으로 관찰되었다(Wolf, 1966: 97-99 ; Geertz, 1998(국역판): 180-183, 204). 이와 관련해 근대한국의 촌락에서는 두 가지 차원의 문화적 행위가 확인되고 있다. 하나는 개인적 차원에서 존재하는 가족윤리이다. 요컨대 효(孝, filial piety)는 가족관계뿐 아니라 혈연관계, 유사 혈연체를 관통하는 한국민의 공동된 윤리의식으로 기능하였다(Ikels, 2004: 155-158, 165-168). 이것은 집합적 공동체인 농촌 촌락에서 더욱 선명하게 부각되었다. 가독(家督) 상속관행이 일반적이었던 일본과 달리, 집성촌(集姓村)이 발달했던 한국과 중국에서 가족윤리의 확대는 광범위하게 관찰되었던 것이다. 다른 하나는 쥘쇼 에이스케의 민족지적 조사에서 확인되는 각종 계(契)이다(善生永助, 1926·1935 ; 임경택, 2006). 향약, 동계, 집성촌 등 촌락을 단위로 한 집합적·협력적 행위의 실체는 한국 농촌 어디에서나 확인

되고 있다. 개인·가족적 차원의 효 개념은 집성촌의 계획에서 보다 확대 재생산되어 기능하였다. 중국이나 일본에서 확인되지 않은 계획(契會)은 일종의 ‘비공식적 상호보험’으로서 유교적 색채가 상대적으로 강했던 한국적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中根千枝, 2002: 317-319). 이같은 현상을 두고 한국 촌락의 문화적 특질을 유교주의적 맥락에서 ‘대동사상(大同思想)’이라 명명하기도 하지만, 이 경우 중요한 것은 문화적 존재의 실체이지 명명의 형태는 아닐 것이다. 문제는 촌락 내에서 농민들이 공유하는 문화적 가치가 실제로 존재하고 기능하는 방식 또는 그 한계에 있다. 분명한 사실은 한국 농촌 촌락에 대해 “단힌 공동체의 이미지”라는 강한 인상을 갖게 되는 이유도 한국 촌락(농민)이 상대적으로 그들만의 고유한 문화적 가치·규범을 비공식적 영역을 통해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모두(冒頭)에서 소개한 레드필드(Redfield, 1956: 70)의 농민사회=소전통론은 그가 제기한 복합사회론의 모토와는 달리 “단힌 공동체의 이미지”를 조장하고 있는지도 모른다(Foster, 1965: 296).

### III. 촌락의 열림과 닫힘 : 촌락의 유형

농촌과 도시부분을 포괄하는 복합사회론은 촌락의 개폐(開閉)에 대해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여기서는 촌락을 둘러싸고 있는 규율권력이나 상업화·도시화 등의 문제를 내생변수화함으로써 촌락의 유형과 농민의 행위패턴 간의 다양한 조합이 구성된다. 촌락의 유형은 크게 보아 “단힌 형태”(shut case)와 “열린 형태”(open case)의 두 가지 이념형(ideal type)으로 대별된다. 촌락의 개폐성은 소규모 공동체(little community)로서 당해 촌락과 그것이 인접한 복합사회(complex society)와의 소통·관련에 의해 규정된 것이다. 도시·상업화, 근대화의 물결에 따라 촌락의 유형은 전자에서 후자의 형태로 이행할 것이다. 다음의 표는 울프 및 스키너의 촌락 유형화 가설을 필자 나름대로 정리한 것이다(Wolf, 1957: 1, 6-7 ; Skinner, 1971: 278-280).

<표 1> 촌락의 유형과 농민의 행위패턴

유형	단힌 촌락	열린 촌락
집합적 행위	유형 1	유형 4
개인주의적 행위	유형 3	유형 2

주 : Wolf, 1957 ; Skinner, 1971.

여기서 제시된 각각의 유형은 19~20세기의 근대전환기에 공간적 시간적 차이에 따라 ‘단계론적’ 발전을 거듭하였다. 더구나 각 지역은 문화적, 종교적, 이데올로기적 조건 즉, 농민의 문화패턴에 의해 그 유형이 상이할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유형 1>은 촌락공동체의 가장 전형적인 형태로서 울프(Wolf)가 제시한 사실상의 ‘이념형’이다. 기존의 많은 연구들이 집중했던 자급자족적 의미의 폐쇄적 농민사회이다. <유형 2>는 <유형 1>과 극단적 대비를 이루는 현대 농촌에서 발견되는 것과 유사한 풍경을 보여준다. 여기서의 촌락민은 사실상 농민(peasant)으로서의 성격이 탈각되면서 근대적 의미의 경작자(farmer)로서의 특질을 보여주고 있다. 스키너(Skinner)는 중국 농촌시장을 사례로 하여 촌락공동체를 닫힘(shut case)과 열림(open case)의 교차와 순환과정으로 이해하였다. 스키너의 경기순환 가설에 의하면, 경기 불황 시 <유형 2>가 <유형 1>로 복귀하는 경우도 상정할 수 있다. <유형 3>과 <유형 4>는 시기와 지역에 따라

폭넓은 스펙트럼을 보여주었다. 양자 간의 구별은 중앙 정부의 정책에 대해 지방 공동체사회가 자율적 의사결정을 행사하는가, 농민에 대해 공동체적 관계가 실질적인 구속력을 갖고 있는가, 가령 후원자-의존자관계(patron-client relation)가 강인가 약한가의 여부,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 결사체 형성의 여부, 시장발달 등 농외 취업기회의 가능 여부 등에 따라 각각의 유형으로 분화될 것이다.

스콧-팝킨 논쟁의 무대였던 베트남에서 우리의 촌락유형화 가설을 거칠게 적용하면, 모탈-이코노미론자인 스콧은 <유형 1>을, 폴리티칼 이코노미스트인 팝킨은 <유형 3>을 제시한 셈이다. 일찍이 인도네시아 자바를 연구한 기어즈는 동아시아 비교분석을 통해 도시 상업부문의 발달에 따라 중국 촌락이 자바 촌락보다 개방되어 있음을, 더구나 보다 개방된 근대 일본 촌락이 자바의 몇 가지 악조건이 시장-친화적으로 치환된, 한층 개방적인 촌락임을 제시하였다(Geertz, 1963: 137-140). 촌락공동체 이론에 회의적이었던 스키너는 시장경제의 발달 즉, 경기순환을 지표로 하여 중국의 촌락을 호경기의 “개방 촌락” 단계로 제시하고 있다(Skinner, 1971: 273 ; 동, 2000(국역판): 72, 126). 특히 시장-상업관계가 발달한 남중국에서는 촌락공동체가 아니라 기층시장영역(standard market area)을 중심으로 하여 촌락이 보다 광역의 범위에서 통합되어 있음을 보고하였다. 이에 대해 필립 황은 북중국의 촌락을 사례로 하여 스키너의 기층시장이론=시장공동체이론을 부정하고 사실상 폐쇄적인 ‘협동조합적’ 촌락(corporate village)을 그리고 있다(Huang, 1985: 259-263).

한국의 경우 두 촌락의 유형이 모두 보고되었다. 하나는 북중국과 유사한 형태의 닫힌 촌락 유형이다(Brandt, 1971: 75-77; Sorensen, 1988: 51-53). 농촌에서 기계화가 시행되기 직전까지 한국의 농촌은 촌락 해체가 완료되지 않은 ‘반조합적’ 형태의 촌락(semi-corporate village) 구조를 취하고 있었다. 그 주요한 계기는 가족·혈연제도, 세대순환(family cycle), 농업생산구조상의 변함없는 장기지속성에 있다. 이같은 모탈-이코노미스트적 견해에 대해 다른 한편으로 폴리티칼-이코노미스트의 입장은 식민지기 한국 촌락이 상업화와 계층분화를 계기로 하여(Shin, 1996: 46-50), 또는 식민지권력의 농촌조직화와 재촌지주의 개인주의적 행위를 근거로 하여(松本武祝, 1998: 132, 149) 열린 촌락의 형태로 전환되고 있음을 주장하였다. 이같은 대조적인 촌락상은 복합사회 내에서 촌락 외부의 요인(시장상업화, 국가정책)과 촌락 내부의 요인(인구압력에 따른 계층분화)에 의해 농민의 행위 패턴이 다양한 경로를 그릴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촌락의 개폐성은 촌락 내외의 소통작용, 농민의 행위 패턴 뿐 아니라 보다 본질적으로는 촌락 자체의 재원이 한정된 것인가, 아니면 확장될 수 있는 것인가의 문제로 소급될 수 있다. 전자의 형태는 생계안전 중심의 ‘정체된 경제’이며 후자는 경제학이 일반적으로 상정하는 성장·발전의 경제이다. 포스터(Foster, 1965: 296)는 촌락이 가진 “한정된 재원의 이미지”(the image of limited good)를 근거로 닫힌 촌락상을 그리고 있다. 그에 따르면 한정된 자원(limited good)은 물질적 재화 뿐 아니라 우정과 불신의 감정, 건강·노동력, 명예 등 정신적 자원까지도 한정된 것으로 파악하였다. 이 경우 한 농민의 소득과 부를 확대하려는 노력은 타인의 희생 없이는 불가능하다. 촌락은 불신, 긴장, 갈등·분쟁으로 점철되고 농민은 점점 개인주의적 성향을 띄게 된다는 것이다. <표 1>에서 <유형 3>이 그것인데, 팝킨의 베트남 촌락분석에서 보다 정교하게 제시되었다. 이것은 촌락내 전술한 무임승차(free-riding) 행위의 만연을 말하고 있으며, 사실상 촌락해체의 형태로 ‘개방’(open)될 것임을 시사한다(<유형 2>로 이행). 이같은 포스터의 논의는 개방된 촌락이라 하더라도 촌락의 ‘물질적 정신적 재원의 한정성’ 때문에 얼마나 닫힌 공동체의 이미지를 강하게 띌 수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농민의 행동은 개인주의(이기적 행위)와 공동체주의(협력적 행위) 간의 선택의 문제인가 아니면 주어진 촌락환경의 필연적 귀결인가. 이것은 단순한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는 농민 문화를 다룬 전장(前章)에서 대면공동체에서 경험적으로 축적된 농민사회의 “공유된 가치·규범”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는 농민의 행위가 촌락의 공유된 가치·규범에 의해 일정 부분 제약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것의 인센티브(incentive) 구조는 개인적 이해나 성장·발전이 아니라 생존위기사 공동체를 통한 생계안전의 보장이다. 여기서의 사회적 규범, 도덕, 촌락관행 등 윤리적 문제는 경험적 실체론적 개념이다. 이 경우 촌락규범은 농민들에게 인지적 지향(cognitive orientation)으로 실재하고 기능한다(Foster, 1965). 사회적 윤리·규범이 농민의 협력적 행위를 유도한다는 사실은, 관념의 세계에서 추상 수준의 혼동을 회피하고 현실에서 선택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있다. 여기서 다루는 경험론은 현실에 기반하고 있는 실체론에 다름 아니다(Little, 1989: 26). 달리 표현하면, 농민 행위의 두 가지 유형 가운데 하나로서 협력적·집합적 행위는 촌락 안정화의 장기적인 해(solution)로서 존재한다. 과중한 인구압력, 빈곤과 기아의 정체된 경제에서 협력적 행위의 인센티브는 결코 작지 않을 것이다. 문제는 촌락의 공유된 가치규범이 어느 수준까지 농민들의 개인주의적 행위에 대해 내성(耐性)을 발휘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 이는 근대전환기의 농민사회에서 적지 않은 무임승차자(free-rider) 문제의 가능성을 단적으로 말하고 있다.

#### IV. 합리적 의사결정자, 농민

농민의 행위를 어느 정도까지 합리적인 의사결정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 농민의 행위는 전술한 집합적·협력적 또는 개인주의적·이기적 행위 이외에도 두 가지 유형이 더 존재한다. 이타적 행위와 악의적 행위가 그것이다. 인간의 행위는 쌍방 영향을 주고받는 소통관계이다. 개인의 행위가 자기 자신과 타인에게 모두 득(+)이 된다면 당해 행위는 협력적(cooperative)인 것으로 간주된다. 농민의 행위가 자신에게만 득(+)이 되고 타인에게 해(-)가 된다면, 이것은 이기적(selfish)인 행위이다. 역으로 자신에게는 해(-)가 되지만 타인에게 득(+)이 되는 행위는 이타적(altruistic)인 것이며, 당해 행위가 쌍방 모두에게 해(-)가 될 때 악의적(spiteful)인 행위로 간주된다. 이를 행위자와 대응자 간의 관계[game]로 정리한 것이 다음의 <표 2>이다.

<표 2> 농민 행위의 4가지 유형

유 형	대응자(recipient)	
	득실	(+) (-)
행위자 (actor)	(+)	협력적 cooperative      이기적 selfish
	(-)	이타적 altruistic      악의적 spiteful

주 : Mcgee, 1993: Choi and Bowles, 2007.

농민의 4가지 행동유형은 촌락 생활에서 무한히 반복되며 대면공동체의 기억과 역사 속에 축적되고 있다. 때로 화합하고 때로 갈등하는 학습과정 속에서 <표 1>에서 제시한 촌락 유형이 결정될 것이다. <표 2>에 따르면 농민 개인에게 득(+)이 되는 행위는 협력적 행위와 이기적 행위이다. 때로 농민들은 대면공동체의 호혜적 또는 온정주의적 관점에서 각각

협력적, 이타적 행위를 하고 있다. 팝킨(Popkin)이 예리하게 비판했지만, 스콧(Scott)은 농민의 호혜적 태도를 단순히 이타적 행위로만 이해했고, 팝킨 자신은 농민의 개인주의적 행위를 이기적 행위로만 이해하는 단순화의 오류를 저질렀다. 농민의 개인주의적 행위는 자신에게 득(+)이 되는 거래로서 이기적 행위뿐 아니라 협력적 행위에 대해서도 모두 열려있다. 그러나 만일 의무없는 호혜(reciprocity without commitment)에 대해 행위자가 이기적 행위로 나올 때 대응자는 악의적 행동으로 제재(sanction)할 지도 모른다. 19세기와 20세기 전반기 동아시아의 농민소요 속에서 악의적 행위가 얼마나 많이 자행되었는가는 쉽게 확인할 수 있다(Popkin, 1979: 252-258; Scott, 1985: 38-46).

농민에게 여러 가지 선택의 가능성이 열려있는 열린 촌락에서 농민의 개인주의적 행위는 이기적 행동 뿐 아니라 협력적 행동의 가능성도 갖는다. 여기서 특히 관심을 갖는 것은 열린 촌락 하에서의 협력적 행위이다. 촌락 생활을 무한히 반복되는 게임(game)으로 이해하는 경우 우리는 ‘반복-호혜성 가설’을 상정할 수 있다(Axelrod, 1984; 최정규, 2004: 84-86). 이른바 “눈에 눈, 이에 눈”(tit for tat) 전략이다. 반복되는 게임에서 상대의 전략에 대해 협력에는 협력, 배신(이기적)에는 배신의 행위로 대응하는 것이다(Choi, 2007). 이를 조건부협력(conditional cooperation)이라고 한다. 협력의 이득이 배신의 이득보다 크다면 이 게임의 유일한 해는 협력적 행위로 수렴될 것이다. 농민사회의 호혜주의적 태도는 반복되는 거래의 기억 속에서 축적되어온 것이다. 이 때문에 촌락 생활에서 농민 사이의 협력적 또는 호혜적 행위는 현재의 이득을 포기하고 미래의 이득을 선택하는 이타적 행위(parochial altruism)까지도 일정 정도 보장하고 있다(Choi and Bowles, 2007). 이같은 사실은 팝킨이 전제한 폴리틱알-이코노미의 세계 즉, 경제인(Homo Economicus) 가설에서도 농민의 개인주의적 선택이 협력적 행위로도 도출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흥미로운 시나리오이다. 단, 촌락의 장기지속성에 따라 게임의 반복성이라는 강한 가정은 충족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과연 협력의 이득이 배신(이기적)의 이득보다 더 큰 것인지는 여전히 문제로 남는다. 농민의 선택 행위에 있어서 이기적 행위와 협력적 행위 간의 가능성은 언제나 열려있다. 이 경우 협력의 이득=인센티브를 강화한다면 조건부협력의 전략은 무임승차 행위에 대한 회피전략으로 기능할 것이다.

기존의 농촌이론은 촌락공동체가 제공하는 보험(insurance)과 복지(welfare)의 기능을 혼동하고 있었다. 근대전환기의 촌락에서 위험분산 대책으로서의 보험 기능은 상대적으로 풍부했지만, 부의 재분배 시책으로서의 복지 기능은 상대적으로 취약했다. 우리가 다루는 촌락공동체는 실상 비공식적 상호보험(informal mutual insurance)의 형태에 가깝다. 경제학적으로 표현하면, 이윤 극대화보다는 위험 최소화가 우선이었다. 만일 공동체가 제공하는 ‘보험계약’의 부담(비용)을 낮추고, 부의 재분배시책으로서 복지의 기능(이득)을 강화한다면, 공동체 성원의 이탈 즉, 이기적·개인주의적 행위는 최소화될 수 있을 것이다(Platteau, 1991: 135-136, 140-143). 이같은 인센티브 전략은 개인의 선택과정 속에서 개인주의적 행위와 협력적 행위 간의 경합적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 팝킨이 전제했던 이기심을 가진 개인주의적 행위는 이러한 두 가지 가능성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폴리틱알-이코노미의 세계에서 농민은 여전히 개인주의적·이기적 선택자이지만, 개인의 장기적 복지증진을 위해 기꺼이 협력적 행위로 전신할 수 있는 합리적 의사결정자임에 주의를 환기할 필요가 있다.

근대 초기에 국가부문을 중심으로 촌락의 복지 수준을 높이하고자 하는 노력은 다방면에서 나타났다. 촌락 레벨의 각종 인프라시설과 산업정책은 지역의 경제발전뿐 아니라 촌락사회의 안정화 차원에서도 필요했던 것이다. 문제는 촌락 개인들이 협력적 행위를 통해 즉, 촌



락 범위의 합의과정을 통해 집합적 공공재를 끌어낼만한 인센티브를 갖고 있는가, 궁극적으로 이같은 협력적 행위의 이득은 개인주의적 행위의 그것보다 더 클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 이 단계에 이르면 촌락의 공공적 기능은 촌락공동체에서 국가나 특히 지방정부로 이전 될 것이다. 산업화와 도시화가 정부의 공공부문보다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동아시아 식민지 농촌의 경우 중앙정부나 관제조직에 대한 촌락 측의 요구는, 정부의 조직화, 통제욕구만큼이나 빈번하였다(松本武祝, 1998: 70, 79). 농촌의 불안정을 초래하지 않는 한, 촌락의 개방화, 촌락의 해체는 농촌발전의 자연스러운 진화패턴으로 자리잡고 있다. 정부지원에 대한 촌락 측의 집단적 요구는 다음의 사례에서 흥미롭기까지 하다. 식민지기 한국의 경우 충청도 등 일부 지역에서 전통적인 동계(洞契)·향약(鄕約)조직이 식민지정부의 지원 하에 지방정부의 하부 조직으로 포섭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했던 것이다(김영희, 2003: 368-371). 물론 이것은 촌락측이 자발적으로 그렇게 한 것이다. 이것은 역으로 보면, 조선총독부도 계획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것을 구래의 폐습으로서 해체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회안정화의 기제로서 이용하고 시정에 활용하고자 했던 의도를 엿볼 수 있다. 이후 충남의 진흥회(振興會)는 농민의 자치조직과 관변조직으로서의 이중적인 성격을 동시에 갖추게 되었다.

식민지화 이후 한국 농촌의 동계류 조직은 국가의 공공적 기능의 강화 즉, 지방 행·재정제도의 확립과 함께 그 기능이 현저하게 축소되었다. 새로운 형태의 목적계가 동계류 조직으로부터 분화하기도 하고 공공적 수요와 관련된 각종 관변 조직·단체들이 난립하기도 하였다(文定昌, 1961(국역본): 9). 그러나 동시에 근대화의 격동 속에서 농민들은 농촌의 안정화를 위해 농민 상호간의 온정주의적이고 호혜적인 연계망을 구축하는 것에도 유의하고 있었다. 산업화와 도시화 속에서 농촌의 생활환경과 농민문화는 농촌안정화를 위한 농민의 집단적 생존윤리를 사회의 구성원리로서 요청하고 있었다(정승진, 2006: 333-336; 마쯔모토 다께노리·정승진, 2008: 212-216).

## V. 비공식적 결사체 : 전망과 한계

18세기 이래 19세기 한국사회는 신분제의 해체와 그에 따른 지방엘리트에 의한 향촌지배의 재편과정을 경험하고 있었다(정진영, 1998: 423). 이는 19세기의 위기를 배경으로 한 중세사회의 해체과정에 다름 아니었다(정승진, 2003). 19세기 이래 유교적 이데올로기를 근간으로 했던 많은 동계(洞契)들이 부침(浮沈)을 거듭하며 각종 목적계로 재편되고 있었다. 특히 20세기 초에 들어오면서 구래로 내려오던 상당수의 동계들은 소멸되거나 소규모의 형태로 탈바꿈하였다(善生永助, 1926: 6 ; 김필동, 1992: 311-316). 일제시기 들어서 식민지 정책은 촌락사회에 깊게 침투하면서 촌락은 점차 지방행정의 최말단기구로 편제되었다(윤해동, 2004: 233-235). 식민지권력은 농촌사회에 대해 때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때로는 동원·통제하는 형태로 농민의 일생생활에 침투하고 있었다. 이 시기에는 일부 재촌지주들, 부농들이 촌락의 범위를 넘어 자신의 개인적 이해에 따라 협력적 경로를 이탈하고 있음도 특징적인 현상으로 보고되고 있다(松本武祝, 1998: 150 ; 동, 2006: 218-220). 한편, 농업의 산업화가 진전되고 인구중압과 결합하면서 새로운 계층분화가 초래되었다(Shin, 1996: 46-50). 식민지기 조선농촌은 더 이상 동질적인 농민들의 집합체가 아니었다. 이같은 거시적 특징은 필립 황이 지적한 바와 같이 계층별 농민의 상이한 행위 패턴과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Huang, 1985: 249-255). 이것은 일종의 '방법론상의 분리'이다. 즉, 상층 부농

은 팝킨이 제시한 개인주의적 농민상을, 하층 빈농은 스콧의 협력적 농민상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1930년대 초 대공황을 경과하면서 상업화, 도시화의 물결은 계층분화를 한층 가속화하면서, 개인주의적 행위에 대한 시각의 전환을 새롭게 요청하고 있다. 이것은 단순한 무임승차문제라는 부정적인 관점으로는 해석할 수 없는 새로운 상황을 연출하였다.

단한 촌락 하에서 개인주의적 행위 특히, 이기적 행위는 촌락의 안정과 질서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것의 최소화를 유도할 수 있을 뿐이다. 팝킨의 묘사에 따르면, 농민사회는 사회적 윤리·규범의 영향 없는, 개인주의적 행위의 집합에 불과하다. 촌락 내의 공유된 가치·규범이 없으므로 농민의 행위는 개인의 선택의 문제일 뿐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무임승차 문제는 스콧이 상정한 단한 촌락하의 협력적 행위에서 발생하고 있었다. 우리는 사회안정화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무임승차문제의 최소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먼저, 개인적 차원에서 농민 상호간에 행위를 주시하고, 개인주의적 행위시 험담, 비방, 욕설, 뒷공론 등으로 심리적 제재(sanction)를 가하는 것이다. 이는 농민의 소극적 본성을 자극하는 일종의 '채찍'이다. 촌락 차원에서는 인격살인, 마녀사냥, 물리적 채벌, 출동(出洞)까지 행사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촌락 내에는 상호불신이 만연하기도 하고, 촌락 내의 협력적 행위가 농민의 자발성이 아니라 공동체의 강제·동원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해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친박'하기까지 한 농민생활상은 멕시코, 자바, 베트남 등의 농민사회에서 리얼하게 실증된 바 있다(Foster 1965; Geertz 1973; Popkin 1979). 가령, 한국에서는 전술한 출동뿐 아니라 향전(鄕戰)에 이은 분동(分洞)이 빈출하는 경우도 보고되었다(정진영, 1998: 461, 520). 일본의 경우 '무라[村]공동체'에서 출동(ostracism)의 위협은 촌락안정화에 결정적이었다. 물리적 출동(banishment)뿐 아니라 마을 내에서 여타 농민과의 대면 접촉을 일체 금하는 심리적 출동은 그 악명을 떨치고 있었다(Smith, 1961: 525-528 ; Befu, 1965: 26-28). 이같은 제재는 부락의 일체성을 회복하기 위한 조정 기제로 이해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제재를 실행하기 위한 거래비용이 너무나 거액이거나 또는 그 비효율성 때문에 제재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었다. 만일 제재의 거래비용이 공동체의 협조적 이득보다 더 크다면, 결국 이 공동체의 무임승차 방지책은 비효율적으로 판명되어 단명할 것이다. 근세 이후 촌락의 분할과 재조직, 연합·종횡이 반복되는 이유는 이 때문이다. 그러나 촌락 내 불신의 만연, 공유된 가치의 붕괴 위에 촌락의 해체가 가속화하면서 생존보장의 장치는 사라지게 되었다. 요컨대, 촌락 내의 윤리·규범은 단한 촌락이 상정되는 역사적 단계에서는 그 존재의의를 갖고 있지만, 근대화에 따라 그 영향력의 범위는 상대적으로 한정적인 것 같다.

촌락 내 무임승차 행위에 대한 보다 본질적인 처방은 인센티브(incentive) 전략이다. 이것이 효과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무임승차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는 촌락 내 개인주의적 또는 이기적 행위에 대한 인식론 상의 일대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농민의 특출한 능력과 개인적 이해의 추구는 개인적 재능이며 공동체가 끌어안아야 하는 안정화의 과제이다. 여기서는 주로 상층 부농, 지주층, 상인, 종교인, 지방관료 등 촌락엘리트층을 겨냥한 제도적 차원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마을의 공동 축제, 제사에서 개인의 지위를 드높이거나, 명예, 특권, 높은 위계(ranking system)를 부여한다. 또한 실질적으로 부의 공유, 재분배에 대한 의사결정권도 부여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후원자-의존자 관계를 공인함으로써 결사체에 대한 항구적 참여와 보상체계를 수립한다(Fafchamps, 1992: 160-161). 촌락엘리트는 의존자와의 관계를 통해 항구적으로 물질적 보상을 향유할 수 있다. 물론 보호·후원의 의무가 뒤따르지만 이들 간의 지속되는 상하관계는 착취관계로 전환되기도 하였다. 또한 외부에서 얻은 부의 축적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함으로써 촌

락의 공동재원으로 유도할 수 있다. 촌락 내의 적절한 계층화는 농민사회에 위험의 공분산(共分散, covariance)을 낮춤으로써 공공재 공급 기능을 증가시킬 수 있었다(Platteau, 1991: 139-143). 동질적 농민사회의 경우 위험의 공분산은 높다. 즉, 부의 균등도는 높다. 그것이 일정한 수준을 유지할 때 공동체의 보험 기능과 복지는 최적화될 것이다. 그러나 상업화에 따라 촌락내 계층분화가 일정한 수준을 넘어서면 촌락의 일체성을 유지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될지도 모른다.

마지막으로, 촌락 농민 전체에 대한 인센티브시스템의 개발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것은 열린 촌락 하에서 개인주의적(=이기적) 행위에 대한 인센티브제도이자 무임승차 행위에 대한 최소화 또는 억제전략이다. 이 경우 비공식적 '상호보험'(mutual insurance)을 공식적 '결사의 연망'(solidarity network)으로 전환하는 것이 문제의 요체이다. '결사체' 구성원의 범위를 가급적 최소화하여 개인간의 정보를 많이 공유하고, 농민 상호간의 신뢰·신탁 관계를 강화한다. 보험계약의 제도화를 위한 재협상(renegotiation)과 연합·제휴(coalition) 등을 통해 공식적 상호보험을 결정화(結晶化)하는 것이다. 이후 제도화된 결사체(solidarity network)는 경로 의존성을 받아 장기 지속하게 된다(Fafchamps, 1992: 158-160). 이같은 시나리오는 개인의 발전, 사회발전뿐 아니라 촌락 내부의 안정화를 겨냥하고 있다. 중요한 점은 협력적 해(solution)의 보상체계가 반드시 물질적·경제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사회 구성원의 연대와 화합, 사회적 가치의 보존도 커다란 자산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플레토는 위험공유시스템(risk-pooling mechanism)이라는 유사한 방안을 제시하였다(Platteau, 1991: 141-143, 162-163). 촌락 농민들의 위험의 공분산이 큰 경우 상호보험의 기능은 현저히 약화된다. 모두가 똑같이 가난한 농민들이 흉년을 맞을 경우 과연 누가 이들을 도와줄 것인가. 여기서는 노동교환 규약, 상호대부와 같은 위험공유시스템을 통해 위험의 공분산을 낮출 수 있다. 이 경우 현재의 어려움과 미래의 도움 간에 책임있는 호혜주의가 발생하게 된다. 이같은 시나리오는 공식적인 사회보장제도를 일종의 협동조합적 복지제도로 전환하는 것을 겨냥하고 있다. 이는 사실상 구래 공동체사회의 보험 기능에서 근대적 복지 기능으로의 전환을 전망하고 있다.

현대 농촌사회는 도시화, 공업화에 따라 점차 닫힌 촌락에서 열린 촌락으로 개방화하고 있다. 도시화, 공업화의 도전 앞에서 촌락의 해체는 근대사회의 두드러진 잔상이다. 플레토(Platteau)의 표현에 따르면, 이는 과거의 동질적인 농촌사회에서 농민간 위험의 공분산이 높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필연적인 결과였다. 이 경우 공동체 내 계층분화가 너무 심해 협력적 경로로부터 이탈하는 개인주의적 행위가 보다 일반적인 행위 패턴으로 자리 잡을 지도 모른다. 열린 촌락은 계층분화가 심화된 상태에서 시장 친화적이며, 국가의 개입에 용이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 레드필드(Redfield)가 말한 사회적 윤리·규범의 측면에서 보면, 이 단계에서 농민사회의 소전통과 도시부의 대전통은 사실상 동질화되어 있다. 나아가 독자적인 농민문화의 해체와 공동체적 윤리·규범의 상실이 초래될 것이다. 농촌사회에서도 도시지역과 같은 아노미(Anomie, 無規範) 현상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현대 복합사회의 표준화, 균질화는 한국 농촌의 현단계를 말해주고 있다. 이 단계에서 농촌문제는 곧 도시문제로 전환된다.

추측과 이론으로만 재구성된 역사에서 원인과 결과를 지나치게 명확하게 하려는 것은 위험한 행위이다. 우리는 지나치게 큰 성과를 바라지 않은 채 촌락 농민에 대한 아주 단순한 유형을 특징짓는 것으로 만족해야 할지도 모른다. 이 글은 동아시아 비교론에 대한 무수한 과제를 던지고 있다. 멕시코, 자바, 베트남, 한국의 촌락 농민이 경제·문화 등 생태형

(ecotype)에 있어서 적지 않은 공통성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아시아지역 내에서도 한국, 중국, 일본, 베트남 등 유교문화권 사회와 동남아시아 제사회와의 사이에도 상당한 차이점이 존재하고 있다. 특히, 식민지를 경험한 한국, 대만, 그리고 베트남의 사례는, 제국주의 국가였던 일본이나 반식민지로 전락해 사회주의화된 중국과 대비해서도 상이한 데, 향후 보다 심화된 비교 분석을 기다리고 있다.

## VI. 농촌해체의 단상 : 에필로그

20세기 한국경제의 발전에 따라 농촌촌락의 해체는 가속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열린 촌락 하에서 농민들의 개인주의적 행태에도 불구하고 공동체적 농민문화의 연구사적 의의는 결코 감소하지 않을 것이다. 이 글에서는 기존의 공동체적 농민문화를 전제한 협력적 농민상에, 닫힌 또는 열린 촌락 하에서의 개인주의적 농민상이라는 두 가지 경로를 동시에 고려해 보았다. 이 과정에서 급격한 도시화, 근대화에도 불구하고 농민사회가 갖는 고유한 경제·문화적 특질과 그것의 복합사회에 대한 영향력이 끈질기게 존속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농민문화는 도시화된 현대사회에서도 빈곤문제로서 초역사적인 개념으로 재해석되고 있다. 멕시코시티의 도시 빈민가를 묘사한 오스카 루이스의 빈곤의 문화(culture of poverty) 개념은 전환기의 한국 농민사회에 중요한 시사점을 던지고 있다(Lewis, 1961). 우리는 공동체(=이미지)의 형태로 빈곤의 문화를 갖고 있었으며, 그것을 극복하는 과도기 즉, 농촌해체기에 서 있다. 21세기 초 농촌해체가 최종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그것의 과도기적 양상을 되돌아보는 것은 것도 무의미한 일은 아닐 것이다.

“가난한 자에게 문화가 웬말이냐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가난의 문화라는 개념이 용어의 모순으로 들릴지도 모른다. 마치 가난이란 것에 대해 품위와 지위를 부여하는 것처럼 생각할 것이다. 내 생각은 그런게 아니다. …… 문화란 본질적으로 대대로 전수되어 내려오는 생활 구도(構圖)를 가르킨다. 가난을 이해하기 위해 이같은 문화 개념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나는 현대국가에서의 가난은 경제가 꺾임이나 무질서나 그 밖의 어떤 결여 상태만을 가르키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가난이란 어떤 적극적 의미까지 가지고 있어서 빈민들이 살아가는 데 없어서는 안 되는 구조이자, 근거이자, 방어기제이다. 간단히 말해서 가난의 문화는 유난히 견고하고 지속적이며 대대로 전수되는 하나의 생활양식이다. 가난의 문화는 그 자체의 양상을 갖고 있으며 그 구성원에 대해 현저한 사회적, 심리적 영향력을 발휘한다. 그것은 좀 더 큰 민족문화의 일부를 구성하도록 하며 그 나름대로 민족문화 내부에서 하나의 ‘하부문화’(subculture)를 형성시키는 역동적인 요인이다. …… 가난의 문화 또는 가난의 특수문화는 역사적인 맥락에서 다양하게 나타난다. 보통 그것은 계층화된 사회와 경제체제가 붕괴하거나 다른 체제로 대체될 때, 즉 봉건제에서 자본제 사회로 이행할 때 또는 산업혁명 시기 같은 때에 나타난다. 때로는 외부세력에 정복당하여 여러 세대에 걸쳐 노예 상태에 빠질 때처럼 제국주의가 식민지를 정복한 결과로도 나타난다.”<sup>5)</sup>

루이스는 멕시코사회의 촌락공동체설을 부정하는 대표적 농민연구자이지만, 인용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빈민가의 저소득층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하층문화 즉, 빈곤의 문화를 인정하고 있다. 이같은 논점은 농촌해체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한국사회에도 시사하는 점이 적지 않다. 20세기 전반 식민지의 경험은 한국 농촌사회에 이른바 ‘빈곤의 문화’를 배태

5) Lewis, 1961(박현수 국역본 1997(재판), 22-23쪽).

시켰던 것이다.

20세기 후반 한국 농촌은 식민지기와는 새로운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해방과 한국전쟁의 사회적 혼란을 뒤로한 채, 농지개혁이 전격적으로 실시되어 자작농이 소작농을 구축하는 경자유전 이데올로기의 실현을 목격하였다. 이 과정에서 농업생산력의 정체와 영세과소농 문제가 나타나기도 했지만(홍성찬, 2001), 영세농의 빈곤 문제는 현대 농촌에서도 협력적·집합적 분위기를 지속시키는 주요한 계기를 연출했다. 1960년대 국가 중심의 경제개발계획이 수립되고 특히, 1970년대 새마을운동기를 맞아 농촌개량, 식량증산 등이 농촌의 주요한 이슈로 부각되었다. 신품종을 중핵으로 한 녹색혁명(green revolution)이 전개되고 그것이 눈부신 성공을 거두면서 절대빈곤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농가경제가 개선되는 어느 시기부터 농민들의 이촌(migration)이 증대하고 있었다는 점이다(최재석, 1988). 도시의 취업, 교육, 문화 등에 기인한 농촌의 광범한 이촌향도(離村向都) 현상은 기존의 공동체적 농촌상에 커다란 변화를 초래하였다. 특히, 1980년대 이후 이농(離農) 현상이 본격화하면서 농촌해체는 한국 현대농촌의 주요한 농업문제로 부각되었다.

그런데, 1970년대 한국의 도시 변두리지역에서도 루이스가 상정한 빈민가, 빈곤층이 형성되고 있었다. 농촌해체의 잔상이 도시지역에서 이른바 ‘슬럼가’로 재현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들에게서도 루이스가 언급한 빈곤의 문화가 확인되고 있다. 농촌 출신의 이들 도시 빈민층은 개인주의적 시민들과는 상이한 농촌의 집합적 분위기를 연출하였다. 그것은 경제적 어려움과 생존위기를 함께 극복하려는 협력적 빈곤문화에 다름 아니다. 이들은 도시의 복합사회 내에서 ‘부분사회’를 형성하고 있던 셈이다. 루이스의 인용문에 따르면, 하부문화(subculture)가 그것의 실재이다. 그러나 경제발전에 따라 중앙정부가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을 제공하면서 빈민층을 중심으로 한 ‘가난의 문화’도 점차 다원화된 도시문화로 수렴되고 있다. 이는 서두에서 레드필드가 언급한 도시의 대전통으로 수렴되고 있는 양상이다. 비슷한 맥락에서 1980년대 이후 대도시 주변의 농촌지역에서도 이같은 현상이 반복되고 있었다. 농촌의 소전통에 기초한 ‘부분사회’는 결국 대전통의 복합사회로 수렴될 운명에 처해 있다. 때문에 울프가 상정한 농민 개념 또한 해체될 수밖에 없는데, 이 점은 합리적 ‘농민’이 등장하는 주요한 계기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전통적 가치는 현대 자본주의, 도시문화 속에서도 존속하고 있다. 급격한 도시화가 몰고온 농민의 개인주의화, 도시민의 원자화(atomization)도 한국인의 몸속에 흐르는 농민의 유전자를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을 것이다. 현대 한국에서 특히 1995년 지방자치시대의 개막, 이후 도농복합시(都農複合市)의 출현은 현대사회에 존속하는 공동체적 삶, 전통의 창조·재현의 문제를 다시금 제기하고 있다. 이는 한국인의 정체성과 관련해 ‘한국인됨’(Koreaness)의 재발견과 인간성(Humanities)의 복원이라는 새로운 의미를 갖고 있다. 우리는 “농업 있는 도시, 도시 안의 농촌”라는 도·농 상생의 복합사회론에 대해 다시금 숙고하지 않으면 안 되는 단계에 이르고 있다.

#### 참고문헌

김영희, 2003. 『일제시대 농촌통제정책 연구』. 서울: 경인문화사.

김필동, 1992. 『한국사회조직사연구: 계조직의 구조적 특성과 역사적 변동』. 서울: 일조각.

- 마쯔모토 다케노리·정승진, 2008. “근대 한국촌락의 중층성과 일본모델: 사회적 동원화와 전통의 창조 개념을 중심으로.”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아세아연구』 제131호: 197-225.
- 文定昌, 1942. 『朝鮮農村團體史』. (國譯: 同. 1961. 『韓國農村團體史』. 서울: 一潮閣)
- 白石昌也, 1987. “東南アジア農村社會論の最近の動向をめぐつて-モラル・エコノミー論とポリテイカル・エコノミー論を中心に.” 東南アジア研究會 編. 『社會科學と東南アジア』. 도쿄: 勁草書房: 27-63.
- 善生永助, 1926. 『朝鮮の契』. 경성: 朝鮮總督府.
- 善生永助, 1935. 『朝鮮の聚落(後篇 同族部落)』. 경성: 朝鮮總督府.
- 松本武祝, 1998. 『植民地權力と朝鮮農民』. 도쿄: 社會評論社.
- 松本武祝, 2006. 『朝鮮農村の<植民地近代>經驗』. 도쿄: 社會評論社.
- 윤해동, 2004. “일제의 面制 실시와 村落再編政策.” 서울대박사학위논문.
- 原洋之介, 1987. “東南アジア農村社會論: 地域研究と經濟理論.” 東南アジア研究會 編. 『社會科學と東南アジア』. 도쿄: 勁草書房: 3-26.
- 임경택, 2006. “젠쇼 에이스케의 『조선의 취락』 연구: 조선의 사회경제와 취락.” 주영하·임경택·남근우. 『제국 일본이 그린 조선민속』. 성남: 한국학중앙연구원: 103-156.
- 정승진, 2003. 『한국근세지역경제사: 전라도 영광군 일대의 사례』. 서울: 경인문화사.
- 정승진, 2006. “羅州 草洞 洞契의 장기지속과 변화, 1601~2001.”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大東文化研究』 제54집: 303-340.
- 정승진, 2008. “동아시아 촌락담론을 통해 본 한국 촌락의 위상: 동아시아지역학에서 농민 문화라는 관점.” 『담론201』 11권 1호: 219-253.
- 정진영, 1998. 『조선시대 향촌사회사』. 서울: 한길사.
- 中根千枝, 2002. 『社會人類學: アジア諸社會の考察』. 도쿄: 講談社.
- 최재석, 1988. 『韓國農村社會變動研究』. 서울: 一志社.
- 최정규, 2004. 『이타적 인간의 출현: 게임이론으로 푸는 인간 본성 진화의 수수께끼』. 서울: 뿌리와 이파리.
- 홍성찬 편, 2001. 『농지개혁 연구』.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 Axelrod, Robert. 1984. *The Evolution of Cooperation*. New York: Basic Books.
- Befu, Harumi. 1965. "Village Autonomy and Articulation with the State: The Case of Tokugawa Japan." *The Journal of Asian Studies* 25(1): 19-32.
- Brandt, Vincent. 1971. *A Korean Village: Between Farm and Sea*. Cambridge, Massachusetts: Harvard University Press(國譯: 金珪奉譯. 1975. 『韓國의 村落』. 時事問題研究所).
- Chayanov, A. V. 1966. *The Theory of Peasant Economy*. Homewood, Illinois: The American Economic Association(Originally Published in 1925).
- Choi, Jung-Kyoo. 2007. "Trembles may support cooperation in a repeated prisoner's dilemma game." *Journal of Economic Behavior & Organization* 63-3: 384-393.
- Choi, Jung-Kyoo & Samuel Bowles. 2007. "The coevolution of parochial altruism and war." *SCIENCE* 318: 636-640.

- Clark, Colin & Haswell, Margaret. 1970. *The Economics of Subsistence Agriculture*(Fourth Edition). London: Macmillan St. Martin's Press.
- Fafchamps, Marcel. 1992. "Solidarity Networks in Preindustrial Societies: Rational Peasants with a Moral Economy." *Economic Development and Cultural Change* 41(1): 147-74.
- Foster, George M. 1965. "Peasant Society and the Image of Limited Good." *American Anthropologist* 67(2): 293-315.
- Geertz, Clifford. 1963. *Agricultural Involution: The Process of Ecological Change in Indonesia*. Berkeley & L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Geertz, Clifford. 1973. *The Interpretation of Culture*, New York: Basic Books  
(國譯: 문옥표譯. 1998. 『문화의 해석』. 서울: 까치).
- Hayami, Yugiro & Rutan, V. W. 1970. "Korean Rice, Taiwan Rice, and Japanese Stagnation: An Economic Consequence of Colonialism."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84: 562-89.
- Huang, Phillip C. 1985. *The Peasant Economy and Social Change in North China*. Stanford, California: Stanford University Press.
- Ikels, Charlotte ed. 2004. *Filial Piety*. Stanford, California: Stanford Univ. Press.
- Lewis, Oscar. 1961. *The Children of Sanchez: Autobiography of a Mexican family*. New York: Random House(國譯: 박賢洙譯. 『산체스네 아이들1』. 서울: 지식공작소. 1997(초역판, 1978)).
- Little, Daniel. 1989. *Understanding Peasant China: Case Studies in the Philosophy of Social Science*. New Haven &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 Mcgee, Stephen. 1993. "Bioeconomics and the survival model: The economic lessons of evolutionary biology." *Public Choice* 77: 117-132.
- Platteau, Jean-Philippe. 1991. "Trational System of Social Security and Hunger Insurance: Past Achievements and Modern Challenges." E. Ahmad, J. Dreze, J. Hills and A. Sen eds. *Social Security in Developing Countries*. Oxford: Clarendon: 112-170.
- Popkin, Samuel. 1979. *The Rational Peasant*. Berkeley & LA & London: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Redfield, Robert. 1955. *The Little Community: Viewpoints for the Study of a Human Whole*. Chicago, Illinois: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Redfield, Robert. 1956. *Peasant Society and Culture: An Anthropological Approach to Civilization*. Chicago, Illinois: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Schultz, Theodore. 1964. *Transforming Traditional Agriculture*. New York: Arno Press.
- Scott, James. 1972. "The Erosion of Patron-Client Bonds and Social Change in Rural Southeast Asia." *The Journal of Asian Studies* 32-1: 5-37.
- Scott, James. 1976. *The Moral Economy of the Peasant: Rebellion and Subsistence in Southeast Asia*. New Haven & London: Yale University Press(國譯: 김춘동역. 2004. 『농민의 도덕경제』. 서울: 아카넷).

- Shin, Gi-Wook. 1996. *Peasant Protest and Social Change in Colonial Korea*. Seattle, Washington: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 Skinner, William. 1971. "China Peasants and the Closed Community: An Open and Shut Case." *Comparative Studies in Society and History* 13(3): 270-281.
- Skinner, William. 2000. 『중국의 전통시장』, 신서원 (Originally Published in 1964-66).
- Smith, Robert. 1961. "The Japanese Rural Community: Norms, Sanctions, and Ostracism." *American Anthropologist* 63(3): 522-533.
- Sorensen, Clark W. 1988. *Over the Mountains Are Mountains: Korean Peasant Households and Their Adaptation to Rapid Industrialization*. Seattle & London: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 Sorensen, Clark W. 1999. "National Identity and the Creation of the Category "Peasant" in Colonial Korea." Gi-Wook Shin and Michael Rubinson eds. *Colonial Modernity in Korea*. Cambridge, Massachusetts: Harvard University Press: 288-307.
- Thomson, Edward. 1971. "The Moral Economy of the English Crowd in the Eighteen Century." *Past and Present* 50: 76-136.
- Wolf, Eric R. 1957. "Closed Corporate Peasant Communities in Mesoamerica and Central Java." *Southwestern Journal of Anthropology* 13: 1-18.
- Wolf, Eric R. 1966. *Peasants*, New Jersey: Prentice-Hall(國譯: 朴賢洙譯. 1978. 『農民』. 서울: 靑年社).

[Abstract]

## Korean Open Village, the Image of the Closed Community

Seung-Jin Chung

This essay aims to present a theoretical issue about the identity of Korean village, comparing with East Asia ones. Although Korean rural village has the characteristics of 'open village' in the context of the relation with outer world, we regard Korean one as a 'closed community'. Owing to have communal ethics in village, Korean village seems to have an image of 'closed corporate community', called by Eric Wolf. Peasants, who live in face-to-face society, share a cognitive orientation that peasants in village are looking forward to act a cooperative behavior all together. But It is peasant culture in the context of a limited area that village peasants can avoid the free-rider problem in community. I would like to present a peasant model that peasants act individual behavior in limited area, considering the community morals shared in village. It is rational peasant that I want to emphasize as Korean peasant's concept in this essay.



Key Words : peasant culture, cognitive orientation, cooperative behavior, free-rider  
problem, rational peasant

JEL Classification : N5